

학교소비자 교육지원 기관을 위한 방향 모색

박 인 순* (관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양 정 혜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김 지 경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가정관리전공 박사과정)

본 연구는 학교 소비자교육에 관한 일본과 유럽의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소비자교육지원기관에 대한 방향 제안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소비자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NICE 와 유럽의 NICE-mail에 대한 Web-site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는 학교에서 제도적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소비자의 권리, 책임과 가계경제 교육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교육이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내용을 다룬다고 볼 때, 분산된 교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경제기획청과 문부성의 협력으로 NICE(National Institute on Consumer Educator)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들이 소비자교육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학교에서의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 도구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일본 소비자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일본의 소비자교육은 환경 및 생활의 질의 향상,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 등,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로운 삶의 방식에 초점을 둔 교육임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교육이 생애 전체에 필요한 교육임을 강조한다.

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소비자 단체와 기구 연합은 소비자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지원, 상호교류 및 협력, 공동연구수행을 위하여 NICE(News & Information about Consumer Education)-Mail을 만들었다. 이것이 유럽의 NICE이며,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을 중심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 전문가로서의 훈련 및 교육체계 개선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소비자교육지원기관은 설립 주체와 특성이 다르지만 소비자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과별 학교 소비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교육 내용이 통합되지 않은 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을 권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위원회와 같은 체제가 필요하며, 교사들이 연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조성을 지원하여 정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